

이승준 02) 2009-7088  
leesj@leading.co.kr

11일 뉴욕증시는 미국 기업들의 계속되는 실적악화가 소비자 신뢰 하락의 영향에 의한 것이며 경기침체가 심화될 것이라는 공포가 확산되며 이틀째 하락 마감.

다우지수는 전일대비 176.58p(1.99%) 하락한 8,639.96에 마감. 1개 종목을 제외한 모든 종목들이 하락.

S&P500 지수는 20.26p(2.20%)내린 898.95, 나스닥 지수는 35.84p(2.22%)내린 1,580을 기록.

이날 스타벅스의 4/4분기 순이익이 540만달러로 작년 동기 1억5,850만달러보다 97% 급감하였다고 발표.

미국 고급주택 건설사인 톨 브라더스는 주택경기침체로 인하여 4/4분기 매출이 41%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하여 미국 소비자 지출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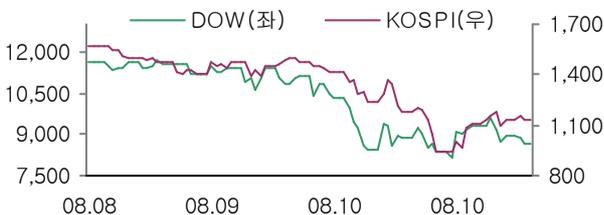
GM은 악화된 경영실적으로 인하여 올해 미 정부의 지원이 없을 경우 파산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주가가 1943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. 이날 주가는 13.1% 급락.

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은행 지주회사로 전환 승인을 받은 후 유동성 부족 우려가 제기되며 6.6% 하락. AIG도 0.9% 하락 마감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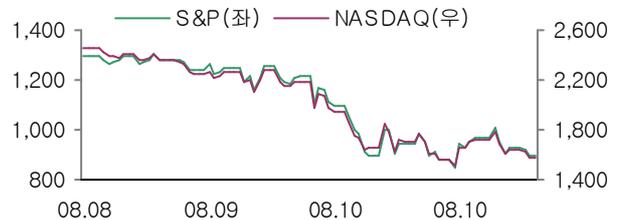
뉴욕유가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 우려로 인하여 5% 급락하며 19개월래 최저치를 기록. 12월물 서부 텍사스산원유(WTI) 가격은 3.08달러 내린 배럴당 59.33달러로 마감.

미국 시장 주요 지표(pt, %)

지수	증가	1일	5일	10일	1개월	3개월	12개월
DOW(좌)	8,693.96	-1.99	-9.68	-4.09	2.87	-26.21	-33.06
S&P(좌)	898.95	-2.20	-10.62	-4.42	-0.03	-31.13	-37.54
NASDAQ(우)	1,580.90	-2.22	-11.19	-4.16	-4.16	-35.21	-38.82



자료: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



자료: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

\* 상기 게재된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, 이와 관련된 최종 의사결정은 이용자 개인의 책임하에 하시기 바랍니다.  
\* 본 자료는 발간일 이전 사전 자료로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 
\*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